

다음 주 안 내겠다

5차 집단교섭, 사용자측 다음 주 안 제시 약속



25일(목) 오후 2시, 두원정공에서 5차 집단교섭이 열렸다. 사용자측 7개사 13명, 노동조합은 10개 사업장 52명의 교섭위원이 참가했다. 집단교섭 8개 사업장 외에 평택안성 지역의 코리아에프티, 지큐피앤씨, 우리지회도 참가했다. 대원산업(안산, 평택)은 회사 체육대회 일정으로 노사 모두 교섭에 참가하지 못해 미리 양해를 구했다.

사장이 구속되고 현대차 관계자도 기소되는 등 변화의 조짐이 있다. 그 동안 너무나 재벌에게만 관대했고, 상대적으로 노동자는 가혹하게 처벌해왔다. 극단적 노사대립 사업장들은 대부분 노조파괴, 해고, 비정규직 확대 등 자본의 공격이 이유였다. 경기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 집단교섭도 최대한 빨리 정리하자.”고 답했다.

잘 됐으면 좋겠다

두원정공 이채용 이사는 “뉴스를 보니 문재인 정부 출범 16일차라는데, 느낌은 몇 달 지난 것 같다. 임기 초이긴 하지만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모습이 긍정적이다.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있다. 집단교섭도 빠른 시일 내 의견이 모아져 잘 되었으면 한다.”고 교섭의 말문을 열었다.

정규전 지부장도 그에 공감하며 “어제 새정부 들어 처음 금속노조가 대규모 집회를 했다. ▶재벌개혁 ▶제조업특별법 ▶노조파괴 금지가 핵심 내용이었다. 최근 유성, 갑을

다음 교섭에 안 낸다

4차 교섭에서 지부는 휴가 전 타결을 위해 5차 교섭에서 사측 제시안을 내달라고 요구했었다. 사측은 “8개사 전체에서 관련 자료들을 취합한 상태다. 안을 협의 중인데, 오늘 제시안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신한발브에서 열리는 다음 교섭에서 안을 제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6차 교섭은 6월 1일(목) 14시 신한발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 전반의 변화와 노동자시민의 정서에 맞는 합리적 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2대지침 폐기 · 최저임금 인상 논의 본격화

25일(목) 언론에는 작년 1월에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2대 지침을 폐기한다는 속보가 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대 지침을 없애자 했고, 고용노동부는 수정·보완하자고 했는데, 폐기 쪽으로 논의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행정지침이어서 고용부의 결정만으로 폐기가 가능하다.

2대지침은 1)일반해고, 2)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를 말한다.

금속노조는 2대지침 폐기를 위해 작년 초부터 꾸준히 싸웠다. 제조공투본을 만들어 한국노총의 제조업 산별들과 함께 투쟁도 했다. 엄청난 응원을 받았던 철도파업, 공공노조 투쟁도 성과연봉제, 단체협약 시정지도, 2대지침 등 노동법개악에 항의한 것이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 해 두자릿수 인상 얘기도 나온다.

새정부 초기의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노동조합이 늘어나 무시 못 할 사회세력이 될 때, 누구도 함부로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지 못한다. 언제나 노동권 후퇴에 맞서 싸우고, 권리의 터전 노동조합을 지키고 확산시킨 우리다. 그 경험과 자부심으로, 누구나 노조하는 세상을 위한 실천에 더 힘을 쏟을 때다.

두원은 지금

보고 싶었어요

짧은 교섭을 마친 후, 교섭위원들은 비타민음료 한 박스씩을 들고 현장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두원 조합원들을 만나다니 설렘지만, 회사 상황으로 분위기가 무거울까 걱정도 됐다. 하지만 걱정은 잠시. 쉬는 시간에 불 꺼진 휴게실에 들어가도 모두 일어나 불을 켜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순회를 마친 교섭위원들은 “조합원들 표정이 너무 좋았다. 역시 두원이다” 한다.



노조 있어 끝까지 함께

두원 이기만 지회장은 회사 경영상황을 교섭위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회사의 한계에서 조직된 노동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회 전체가 논의 중이다. 98년 경제위기 때 회사가 어려웠어도 장기적 전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이 더 어렵다. 하지만 98년엔 노동자들이 불안감에 못 이겨 관두고 고동스러워했다면 지금은 전혀 다르다. 노동조합이 있고 동료들이 있어 끝까지 다 같이 간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행복한 삶과 일터 위한 신중한 발걸음

지회는 전 조합원 설문을 수 차례 진행해 조합원 의견을 꼼꼼하게 모아 토론할 예정이다. 불확정적인 미래에 대비하는 과제를 세밀하게 고민하고, 모두가 함께 끝까지 지켜갈 원칙을 단단하게 세우는 과정이다.

첫 설문에서 두원조합원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으로 02년 민주노조 전환투쟁, 10년 주간연속2교대 쟁취 투쟁, 14년 구조조정 저지 및 지회장 해고분쇄투쟁을 높은 순위로 꼽았다. 행복한 현장을 지키는 투쟁에는 고용안정·생존권 사수라는 투쟁목표, 단결불패라는 실천기조,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공감하여 결정하는 과정, 흔들림 없는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투쟁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는 미래와 전망 불안, 회사의 무능력과 무책임, 구조조정을 꼽았다.

최근 지회와 전조합원 논의를 거쳐 진행한 자구노력에 관해서는 길고 어려운 토론을 거쳐 내린 최선의 결정, 우리 손으로 전체 조합원의 고용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의견이 60% 중반을 넘는 답변을 얻었다. 한편 비판의견도 30%를 넘어, 지회가 모두의 삶을 위한 신중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회사 전망의 불확정성에 대비해 고용을 지키기 위한 회사경영 개입, 물량확보를 통한 매출 증대방안 마련, 조합원들의 불안과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의견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전 조합원의 고용, 현실성 있는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를 위해서는 전 조합원의 공감,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 함께 행동, 끝까지 함께한다는 전조합원 결의, 우리 삶과 노동의 필요를 최우선하는 위기대응방안 마련이라는 원칙을 지키자고 했다.

1차 설문결과를 기초로 심화 설문을 만들어서 몇 차례 더 설문을 이어갈 예정이다.